

서울시 米穀流通 現況分析

朱 龍 宰

首席研究員, Ph. D. (農業經濟學), 食糧經濟研究室

李 英 基

研究員, 食糧經濟研究室

- I. 序 言
- II. 서울시 米穀流通現況
- III. 糧穀小賣商 調查結果
- IV. 產地直結流通과 都賣市場經由流通의 比較分析
- V. 맺는 말

II. 서울시 米穀流通現況

1. 米穀市場概要

I. 序 言

米穀은 韓國民의 主食으로서 農家所得의 大宗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需要와 供給이 非彈力的인 관계로 需給의 不均衡은 격심한 米價의 變動을 초래한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米穀의 원활한 需給과 米價의 安定을 위하여 米穀市場에 적극 介入하여 왔으며, 이 결과 米穀流通組織은 自由市場 組織과 政府管理組織으로 二元化되었다. 또한 政府에서는 生産者와 消費者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二重米價制를 실시한 결과 최근에 糧特赤字가 累積되고, 二重價格構造下에서 政府米가 不正流通되는 등 諸問題點이 발생하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米穀流通에 관한 研究의 일환으로 실시한 消費地의 米穀流通調查에서 서울시의 米穀搬入現況과 小賣商調查의 결과를 重點的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서울시 안의 米穀流通은 크게 政府經路, 商人經路 및 農協經路로 大別된다. 政府米流通은 政府에서 收買한 米穀이 行政組織, 農協組織 및 商人組織을 통하여 流通되는 경우이며, 農協經路는 産地의 單位農協, 郡農協, 農産物集荷場에서 蒐集된 米穀이 서울시의 農協共販場과 農協販賣場을 통하여 流通되는 경우이다. 또 商人流通經路는 産地의 蒐集, 搬出商 및 搗精業者 등을 통하여 서울시의 米穀商人(委託商, 都賣商과 小賣商 등)을 經由하여 最終消費者에게 流通되는 經路이다.

1980년 6월 30일 현재 서울시에 登錄된 糧穀商數는 委託商이 141名, 都賣商이 29名, 小賣商이 6,491名, 蒐集商이 9名 그리고 農協販賣店이 1,384個所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小賣商과 農協販賣店의 地域別 分布를 보면 <表 1>과 같이 地域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小賣商은 人口 1,300名에 1個所,

表 1 서울시 地域別 小賣商 및 農協販賣店分布

地域別	區分		計(C)	人口數(D)	D/B	D/B	D/D
	小賣商數(A) ¹⁾	農協販賣店(B)					
중로구	269	37	306	320	1,190	8,649	1,046
중구	289	48	337	250	865	5,208	742
동대문구	729	142	871	823	1,129	5,796	945
성동구	525	121	646	679	1,293	5,612	1,051
성북구	441	81	522	593	1,345	7,321	1,136
도봉구	625	124	749	749	1,198	6,040	1,000
서대문구	353	65	418	422	1,195	6,492	1,010
마포구	326	62	388	434	1,331	7,000	1,119
용산구	280	62	342	352	1,257	5,677	1,029
영등포구	804	200	1,004	1,003	1,248	5,015	999
관악구	736	146	882	979	1,330	6,705	1,110
강남구	158	63	221	345	2,184	5,476	1,561
강서구	332	87	419	470	1,416	5,402	1,122
강동구	276	56	332	466	1,688	8,321	1,404
은평구	319	65	384	379	1,188	5,831	987
계	6,462	1,359	7,821	8,264	1,279	6,081	1,057

1) 小賣商分布는 79년 12월 31일 基準日.

2) 農協販賣店分布는 79년 6월 23 基準日.

3) 서울시 常住人口數日(79.10.1).

資料: 서울시 糧政課, 統計課, 農協中央會 共販部.

農協販賣店은 人口 約 6,000名에 1個所씩 分布되어 있는 셈이다. 地域別 小賣商當 人口數는 中區가 865名으로 제일 적은 반면에 江南區와 江東區는 各各 2,184名과 1,688名으로서 其他 地域에 比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다.

2. 米穀流通經路別 流通量 推移

서울시 米穀流通經路別 流通量의 比率을 파악하려면 서울시 米穀搬入量의 推定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年間 米穀搬入量을 <表 2>와 같이 1人 當年間 消費量에 서울시 常住人口數를 乘하여 推定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에 搬入된 米穀은 市外로 再搬出되지 않고 當年에 전부 消費되어 在庫增減이 없다는 前提인 것이다. 물론 서울시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人口가 매일 移動하나 本 推定에서는 이 流動人口는 서로 相殺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推定된 1979년도 서울시 米穀搬入量은 約 1,050千噸으로 推定되며, 이를

表 2 流通經路別 서울시 米穀搬入量

單位: 千%

米穀年度	總搬入量 ¹⁾	政府放出量	農協 ²⁾ 系統出荷	都賣 ³⁾ 市場經由	直結 ⁴⁾ 搬入
1975	827(100.0)	276(33.4)	50(6.0)	195(23.6)	306(37.0)
76	839(100.0)	361(43.0)	40(4.8)	158(18.8)	280(33.4)
77	916(100.0)	233(25.4)	40(4.4)	194(21.2)	449(49.0)
78	1,011(100.0)	501(49.6)	13(1.3)	58(5.7)	439(43.4)
79	1,050(100.0)	725(69.0)	18(1.7)	33(3.2)	274(26.1)

1) 糧穀消費量 調査結果에 의한 非農家 1人 1年間 米穀消費量×서울시 常住人口數.

2) 서울시 農協共販場販賣實積(歷年基準日).

3) 서초동類似都賣市場搬入量일(76年以前은 龍山驛搬入量).

4) 總搬入量-政府放出量-農協系統出荷量-都賣市場經由搬入量.

()內는 構成比일.

資料: 農水產部 「食糧局」, 農協中央會 「共販部」.

流通經路別로 보면 政府米放出量이 725千噸으로 전체 搬入量의 約 69%를 차지하였고, 自由市場을 經由한 搬入量은 325千噸으로 約 31%에 불과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 自由市場流通量중 產地直結流通量이 約 84%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의 쌀 搬入量중 政府米放出量의 比率은 1975년의 33.4%에서 1979년엔 69.0%로 增加한 반면 農協系統 出荷量이 차지하는 比重은 1975년의 6.0%에서 더욱 減少하여 一般米에 대한 最高價格制를 실시한 1978년에는 1.3%로 減少하였고, 1979년에는 1.7%이었다. 또한 서울시 米穀搬入量 중 類似都賣市場을 經由한 物量은 <表 2>와 같이 1977년까지는 約 20% 水準을 유지하였으나 78년엔 5.7%, 79년엔 3.2%로 激減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시 米穀流通에 있어서 都賣市場組織의 比重이 낮아지게 된 것은, 政府米의 放出量이 增大함에 따라 自由市場經路 流通量이 상대적으로 減少한데다 交通과 通信의 發達로 產地蒐集 搬出商과 消費地小賣商 間의 直結去來가 盛行하게 되었고, 1977년 7월 附加價值稅制가 실시된 이후 產地搬出商人이나 未登錄商人이 稅源

露出을 염려하여 賣市場에 搬出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주로 기인된다.

Ⅲ. 糧穀小賣商 調查結果

本 小賣商 調查에서는 서울시의 糧穀 小賣商 50名을 有意選定하였고, 標本選定에 있어서 都賣市場과의 거리와 小賣商의 位置(住宅街, 市場, 아파트地域)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全地域에 가능한 한 골고루 배분하였으며, 이의 주요 結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小賣商 概況

小賣商의 平均 店舖面積은 實面積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7坪 정도로 調查되었으며, 店舖規模別 小賣商 分布를 보면 <表 3>에서와 같이 5坪 이하의 店舖가 74%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다. 小賣商의 店舖保有 形態를 보면 自己所有가 28%이며, 나머지 72%는 店舖를 賃借하고 있는 실정이다. 店舖賃借條件은 地域, 店舖의 位置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개 店舖에 딸린 방한칸을 포함하여 200~300萬원의 保證金에 月賃 5~10萬원 정도로 調查되었다.

小賣商의 營業形態를 보면 調查小賣商 中 糧穀 小賣業만을 專業으로 하는 商人이 86%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糧穀小賣業 이외의 兼業을 가진 小賣商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糧穀小賣商의 兼業은 연탄, 담배, 달걀 등의 小

表 3 店舖規模別 小賣商分布

規 模	數	構成比(%)
3坪 以 下	9	18
4 ~ 5坪	28	56
6 ~ 7坪	9	18
8 ~ 9坪	4	8
計	50	100

賣業과 食品店, 精肉店, 방앗간, 不動產紹介業 등이다.

小賣商의 雇傭勞動 利用狀況을 보면 調查對象 小賣商의 20% 미만이 從業員을 雇傭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小賣商은 家族勞動에 의존하고 있다. 從業員을 雇傭하고 있는 小賣商은 대부분 맨션아파트 地域이나 市場地域에 位置한 것으로 서 비교적 규모가 크며 糧穀小賣業 이외의 다른 兼業을 하고 있었다. 小賣商에서 從業員에 支給하는 報酬는 小賣商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개 월 8~10만원 정도이다.

小賣商의 運營資金은 小賣商의 규모에 따라 100~800萬원으로 차이가 크며 200~300萬원인 小賣商이 32%정도로 제일 많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500萬원 以上은 12%이었다<表 4>.

表 4 運營資金 規模別 小賣商分布 狀況

運營資金規模	小賣商數	%
100 萬원 이 하	5	10
100~200 萬 元	8	16
200~300 "	16	32
300~400 "	9	18
400~500 "	6	12
500~800 "	6	12
	50	100

이러한 資金規模의 차이는 주로 取扱量과 外 上販賣量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小賣商의 약 40%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私債나 마을金庫 貸付金 등 他人資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調查되었으며, 運營資金에 대한 他人資金 依存率은 평균 10.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米穀小賣商의 他人資金 依存率이 비교적 낮은 것은 이들 小賣商의 營業規模가 零細할 뿐만 아니라, 荷主나 都賣商으로부터 米穀의 外上購入이 可能하여 運營資金의 需要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5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量 比率

	購入量比率(%)
都賣市場(委託·都賣商)	24.4
産地市場(農民·商人·搗精業者)	7.0
荷主直接搬入 ¹⁾	64.4
其 他	4.2
	100.0

1) 이 경우의 荷主는 주로 蒐集 搬出商人이며 農民 搗精業者 등인 경우도 있다.

表 6 米穀購入時 都賣市場 利用度別 小賣商 分布

都賣 市場 利用度	小賣商數	構成比(%)
전혀 이용 안함	28	56
購入量의 30%미만	5	10
30%~60%	8	16
60%~100%	9	18
	50	100

2. 小賣商의 去來實態

가. 米穀購入 및 販賣狀況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를 보면 <表 5>와 같이 委託商이나 都賣商으로부터 購入한 量은 24%에 불과하고, 小賣商이 직접 産地市場에 가서 구입해 오거나 産地의 荷主가 小賣商으로 搬出해 온 것을 購入한 量이 약 71%에 달하고 있다. 또한 小賣商의 米穀購入時 都賣市場(委託商 혹은 都賣商) 利用度を 보면, <表 6>에서와 같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小賣商이 56%에 달하고, 購入量의 60% 이상을 都賣市場에서 購入하는 小賣商은 1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小賣商이 米穀購入時 産地直結去來를 하는 주된 理由는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費用이 적게 들거나 購入價格이 싸서 보다 많은 利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商人이 47.6%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品質이 좋은 쌀을 購入하기 위해서가 약 38%, 都賣市場이 멀고 불편해서라는 商人이 약 10%로 나타났다.

米穀小賣商은 米穀을 消費者나 食堂 등 大量

表 7 産地直結去來를 하는 理由

	小賣商數	構成比(%)
品質이 좋은 쌀을 購入하기 위해서	16	38.1
費用이 적게 들거나 購入價格이 낮	20	47.6
으므로		
都賣市場이 멀고 불편해서	4	9.5
기 타	2	4.8
계	42	100.0

表 8 小賣商의 1일 販賣回數

販 賣 回 數	小賣商數	構成比(%)
5 회 이내	2	4
5 ~10 회	21	42
10~15 회	19	38
15~20 회	5	10
21회 以上	3	6
계	50	100

需要者에게 販賣하고 있으며, 販賣處數는 小賣商의 규모에 따라 최하 70個處에서 최고 1,000個處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190個處로 調査되었다.

1회 販賣量이 8kg 이상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米穀小賣商의 1일 평균 販賣回數는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5~15회이며, 8kg 이상이면 대개 小賣商에서 배달을 해 주고 있다.

나. 小賣商의 米穀去來量

本 調査에서 小賣商의 1일 평균 販賣量은 4.6 ㏍로 調査되었다. 한편 1979년도 非農家 1人當 年間 쌀 消費量(129.4kg)에 서울市 常住人口數(8,114,021人)를 합하여 算出한 서울市 쌀 消費量에 小賣店舖數(7,875)를 적용하여 計算한 서울市 小賣店舖의 1일 평균 販賣量은 4.6 ㏍로 推定되며, 이는 本 調査結果와 비슷하다. 그러나 小賣店舖 中 農協販賣店의 1일 평균 販賣量은 5.5 ㏍로서 一般小賣商보다 많으므로 農協販賣店을 제외한 一般小賣商의 1일 평균 販賣量은 4.4 ㏍로 推定되며, 이는 本 調査의 평균 小賣商販賣

表 9 小賣商의 주된 價格情報入手處

情報入手處	小賣商數	構成比(%)
產地市場	3	6
產地商人과의 電話	13	26
이웃 小賣商(地區組合)	25	50
都賣市場에서	9	18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	—	—
계	50	100

量 4.6ㄷ 보다 약간 낮은 水準이다.

本 調査의 小賣商 平均 販賣量 4.6ㄷ를 一般米와 政府米로 구분하여 보면 一般米 1.9ㄷ, 政府米 2.7ㄷ로서 政府米가 약 60%였는데, 이는 1979년도 서울시 米穀流通量 中 政府米 比重 70%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다. 市場情報

서울시 小賣商의 市場情報 入手處別 비율을 보면, 地區組合內의 이웃 小賣商이 약 50%로 제일 높으며, 다음은 產地商人이 26%, 신문 및 라디오 등 매스컴으로부터 入手하는 小賣商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9>. 小賣商은 보통 1주일에 2회 정도 地區組合에 政府米를 신청하므로 組合員을 통해 地域內 小賣商의 購入價格이나 販賣價格을 알 수 있으며, 產地商人과의 직접 電話連絡으로도 產地市勢를 알 수 있다. 都賣市場에서 市場情報를 주로 入手하는 小賣商은 불과 18%로서, 都賣市場은 小賣商에 대한 직접적인 市場情報 提供의 機能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小賣商의 經營收支分析

월 平均 米穀販賣量이 130ㄷ(1일 販賣量 4.4ㄷ) 정도인 中규모의 小賣商과 調査對象 50個 小賣商 가운데 販賣量 順位 35位에 해당하는 월 販賣量 100ㄷ 정도의 소규모 小賣商에 대한 經營收支를 分析하였다.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表 10 月 經營收支 分析(80년 5월 기준)

單位: 千원

區 分	規 模		備 考
	中	小	
月 間 販賣量	政府米(ㄷ)	90	70
	一般米(ㄷ)	40	30
收 入	米穀收入	380	290 ㄷ當賣買差益; 政府米 2000원, 一般米 5000원
	雜穀收入	30	20
入	副產物收入	5	4 가마니, p.p袋
	計 (A)	415	314
費 經	雇傭勞力費	—	—
	輸 送 費	29	23 政府米 10kg당 40원
	包 裝 費	3	2
	通 信 費	4	3
	水道光熱費	3	2
營 用	賃 借 料	70	50
	負擔利子	—	—
費 用	租 稅 公 課	13	8 所得稅 및 住民稅의 1個月分
	組 合 費	3	3
	其 他	2	2
	小 計 (B)	127	93
	自己資金利子	60	30 各各 300, 150만원 월2% 적용
	計 (C)	187	123
損 益	所 得 (A=B)	288	221
	純收益(A-C)	228	191 自家勞賃 評價分未計上

중규모의 小賣商에 있어 월 所得은 약 28만 8千원으로 推定되며, 이 月 所得에서 自己資金利子만을 제외한 純收益은 불과 228千원이었다. 한편 월 販賣量 100ㄷ(政府米 70ㄷ, 一般米 30ㄷ)인 소규모 小賣商의 경우 월 所得은 22만 1千원, 純收益은 19만 1千원으로 각각 調査되었다. 이와 같이 영세한 小賣商은 米穀小賣業에서 얻는 所得만으로는 生計費에도 미달하는 水準이므로 等級 및 價格 마진 등 不正流通이 발생할 可能性이 있다 하겠다.

小賣商 經營費의 費目別 構成比를 보면, 店舖賃借料가 50~60%로서 제일 크며, 輸送費가 약

20%, 租稅公課金 약 10%의 順이다. 小賣商에 있어 輸送費의 比重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一般米의 產地直結去來時 대개 產地荷主가 小賣商까지의 輸送을 擔當하고 있기 때문이다.

小賣商 經營收支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小賣商의 取扱量, 呔當 마진率, 諸費用 등이다. 현재 政府米의 呔當 마진은 2,000원인데 반하여 一般米의 小賣商 呔當 마진은 약 5,00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물론 小賣商이 一般米을 취급할 때에는 석발하여 再包裝하는 등 추가적인 費用이 所要되나, 이러한 費用을 감안하더라도 一般米의 呔當 마진은 政府米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水準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一般米의 마진이 높은 것은 取扱物量이 적은데 주로 기인된다. 그러나 이 小賣商의 所得은 國民소득과 비교해 볼때 높은 水準은 아니다.

또한 本 調査에서 小賣商의 약 70%가 他人所有의 店舖를 이용하는 관계로 높은 賃借料를 支拂하고 있는 것으로 調査되었는데, 이 역시 小賣商의 經營費를 增大시켜 呔當 마진을 높이는 重要한 요인이 되고 있다. 小賣商의 經營收支를 改善하는 동시에 呔當 마진의 增加 要因을 緩和하기 위해서는 小賣商의 數를 줄임으로써 取扱物量을 增大시키는 方案을 考慮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小賣業에서 탈락되는 小賣商의 雇傭問題가 提起됨은 물론 小賣商과 消費者 家口와의 平均距離가 멀어짐으로써 消費者의 불편도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小賣商의 규모를 크게 增大시키므로써 小賣商마진의 壓迫要因을 除去하는 것보다는 糧穀小賣業과 다른 商業 또는 서어비스業과의 兼業을 장려함으로써 小賣商의 店舖와 自家勞動을 보다 效率的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小賣商의 全體所得을 保障함으로써 米穀小賣商마진을

줄이고 等級 및 物量마진등 不正流通을 最少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한 小賣商의 零細化規模를 더욱 惡化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小賣商의 新規許可를 기존 小賣商의 分布에 따라 적절히 制限할 필요도 있으리라 본다.

IV. 產地直結流通과 都賣市場 經由 流通의 比較分析

1. 現 況

產地直結流通이란 一般米가 消費地의 都賣市場을 經由하지 않고 產地商人으로부터 消費地 小賣商으로 직접 流通되는 經路를 의미한다. 물론 米穀이 小賣商을 經由하지 않고 產地로부터 消費者에게로 직접 流通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선 產地直結流通에 포함되겠으나 여기에선 前者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產地直結流通은 米穀의 搬入 주체와 引渡場所에 따라 小賣商이 產地市場에 가서 生産農家 產地商人 및 搗精業者 등으로부터 米穀을 직접 購入 搬出하는 형태와 產地의 荷主가 직접 小賣商店舖에 引渡하는 형태로 크게 區分된다.

產地直結 去來形態別 比率를 보면 <表 11>과 같이 주로 產地荷主가 小賣商에 輸送하는 형태

表 11 產地直結去來形態別 小賣商分布

形 態 別	小賣商數	比率(%)
주로 산지시장에서 구입해 온다	6	13.3
주로 산지하주가 가게로 실어온 것을 구입한다	34	75.6
산지시장에서 구입해 오는 경우와 산지하주가 실어온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반반쯤이다	3	6.7
기 타 ¹⁾	2	4.4
計	4.5	100.0

1) 기타엔 產地이 친적이 購入하여 보내주는 경우 등이 포함됨.

가 약 76%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小賣商이 주로 產地에 직접가서 購入하는 형태는 약 13% 정도로 나타났다. 產地荷主는 주로 產地 搬出商人이며 搗精業者, 未登錄商人인 경우도 있다. 이들 荷主는 한번에 2.5~4톤 트럭에 쌀 30~80 ㄲ 정도를 싣고 消費地의 小賣商을 순회하며 販賣하고 있다. 이들 荷主는 대부분 단골 소매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電話連絡으로 小賣商이 필요로 하는 物量을 미리 把握하고 그에 맞추어 米穀을 搬出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小賣商은 대개 약간명의 產地荷主와 단골로 去來하면서 이들과 外上去來를 터 놓고 있다. 資金能力이 비교적 큰 대규모 小賣商은 產地搬出商人으로부터 米穀을 大量購入하여, 인근 零細小賣商에 ㄲ當 1,500~2,00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販賣하는 事例도 있다. 이 경우 대규모 小賣商은 실질적으로 都賣商 機能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小賣商의 米穀購入 價格은 都賣市場에서 購入하는 경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市の 米穀搬入量 推定으로부터 <表 2> 都賣市場經由 搬入量과 產地直結搬入量과의 對比表를 마련하였다<表 12>.

<表 12>의 產地直結 搬入量에는 產地에서 消費者에게로 직접 搬入된 量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量은 전체 一般米流通量에 비하면 극히 적은 量으로 推算된다.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產

表 12 서울市 一般米 經路別 搬入量比較 단위:千ㄲ

年 度	都賣市場經由	產地直結搬入 ¹⁾	計
1975	195(38.9) ²⁾	306(61.1)	501(100.0)
76	158(36.1)	280(63.9)	438(100.0)
77	194(30.2)	449(69.8)	643(100.0)
78	58(11.7)	439(88.3)	497(100.0)
79	33(10.7)	274(89.3)	307(100.0)

1) 產地 直結搬入에는 產地에서 消費者에게로 搬入된 量도 包含됨.

2) ()內는 構成比임.

地直結搬入量의 比率이 최근에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79年の 경우 產地直結搬入量은 都賣市場經由流通量의 8배나 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農協中央會의 調査結果에 의하면, 서울市の 경우 一般米 總搬入量 중 產地에서 小賣商으로 直接搬入되는 量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년대 말에 25% 정도에 불과했으나 1977년도엔 75%로 현저히 增加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本 小賣商 調査의 結果 역시 서울市 小賣商의 約 56%가 一般米 購入에 있어서 都賣市場을 전혀 利用하지 않으며, 總購入量의 60% 以上을 都賣市場에서 購入하는 小賣商은 불과 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6>. 최근에 產地直結流通이 都賣市場經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增大되고 있는 主要因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交通과 通信手段의 발달로 價格情報의 신속한 入手가 可能하게 되고, 輸送時間이 短縮됨에 따라 產地商人和 消費地 小賣商間에 電話를 이용한 去來와 트럭에 의한 遠距離 輸送이 용이하게 되었다.

둘째, 都賣市場을 經由할 경우엔 委託商手數料 500원과 都賣市場에서의 上下車費 140원 등 追加經費가 所要되나 都賣市場을 經由하지 않고 直結去來할 경우 이 費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商人들은 產地直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1977년 7월 附加價值稅制 실시 이후 產地의 搬出商人이나 未登錄商人들이 稅源의 노출을 염려하여 都賣市場에의 出荷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 역시 產地直結流通을 촉진시킨 要因 중의 하나로 評價되고 있다.

이밖에 本 小賣商 調査에서 米質이 좋은 京畿米를 購入하기 위하여 產地直去來를 한다는 小賣商이 약 38%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一般米 價格統制를 실시한 1978년 6월 이후, 行政團東

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市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급격히 減少한 반면 產地直結去來가 盛行한 事例도 있다.

2. 流通經路別 流通마진 比較

小賣商에서 產地直去來를 하는 주된 理由를 調査한 결과 小賣商의 48% 정도가 購入하는 價格은 都賣市場에서와 비슷하지만 都賣市場에서 購入時에는 小賣商이 輸送費, 上車費를 負擔하여야 하나 產地搬出商으로부터 직접 購入할 경우에는 輸送費를 節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同質米의 消費地 米價는 需要·供給에 의하여 一物一價의 法則이 적용될 것이므로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小賣商은 產地直結流通時 都賣市場에서 購入하는 경우보다 費用을 節約하는 만큼 超過利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搬出商은 小賣商으로 직접 搬出(直渡)할 경우 輸送費가 약간 더 所要되긴 하지만, 委託商 手數料 및 都賣市場에서의 下車費 등 諸流通費用을 節減할 수 있으므로 追加的인 利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利川·서울 間의 一般米 特品(주로 京畿米 아까바레品種)의 總流通마진이 呎當 8,000원으로 小賣價格에 대한 마진율은 15.4%로 調査되었다 <表 13> 同一地域間에 流通經路別 總流通마진은 差異가 없으나 流通段階別 마진은 물론 費用과 利潤의 構成面에서도 <表 13>과 같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委託商을 經由하는 경우 產地의 蒐集·搬出段階의 마진은 2,430원, 中繼段階의 마진은 570원, 消費地의 小賣商段階의 마진은 5,000원으로 小賣商의 마진은 總 마진의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한편 產地直結 流通時 產地商人이 小賣商까지 輸送하여 販賣하는 경우 蒐集·搬出段階의 마진이

表 13 利川·서울 間 流通마진(80.5.28基準)

單位: 80kg/呎

經路別	委託商經由	產地直結流通		
		搬出商搬入	小賣商搬入	
農家販賣價格	44,000(84.6)	44,000(84.6)	44,000(84.6)	
蒐集搬出段階	輸送費	700(1.3)	800(1.5)	100(0.2)
	上車費	100(0.2)	100(0.2)	—
	기타費用	200(0.4)	200(0.4)	—
	利潤	1,430(2.8)	1,900(3.7)	1,200(2.3)
	小計	2,430(4.7)	3,000(5.8)	1,500(2.9)
中繼段階	下車費	65(0.1)	—	—
	委託商手數料	500(1.0)	—	—
	警備	5(0.0)	—	—
	小計	570(1.1)	—	—
小賣商價格	47,000(90.4)	47,000(90.4)	45,500(87.5)	
分散段階	上車費	75(0.1)	—	—
	輸送費	225(0.5)	—	700(1.3)
	賃借料	350(0.7)	350(0.7)	350(0.7)
	其他費用	150(0.3)	150(0.3)	150(0.3)
	利潤	4,200(8.0)	4,500(8.6)	5,300(10.2)
	小計	5,000(9.6)	—	6,100(12.5)
小賣價格	52,000(100.0)	52,000(100.0)	52,000(100.0)	

3,000원으로 委託商 經由보다 570원이 많은데 비해 小賣商의 마진은 5,000원으로 委託商 經由와 같은 데 이는 中繼段階의 마진이 產地商人의 마진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消費地 分散段階에 있어서 總마진은 5,000원으로 같으나 產地直去來(搬出商搬入)의 경우 小賣商의 上車費 및 輸送費는 委託商經由보다 300원이 節約되어 小賣商의 利潤은 그 만큼 增加하게 된다. 또한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賣商이 直接 產地市場에서 米穀을 購入하여, 搬入하는 경우 小賣商의 利潤은 呎當 5,300원으로 搬出商으로부터 購入하는 경우 보다도 약 8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產地直結에 의한 流通費用의 節減效果는 商人의 追加的인 利潤으로 귀속될 뿐 生産者나 消費者에게는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去來에

있어서 生産者나 消費者가 商人에 비하여 不利한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生産者인 農民과 蒐集・搬出商人이 去來關係에 있어서 對等한 位置에 있게 되면, 上記 流通費用의 절감액은 生産者와 商人에게 均等하게 配分될 것이나 現實에 있어선 生産者인 農民의 대부분은 零細小農인 關係로 一般的으로 商人에 비하여 去來關係에 있어 不利한 位置에 있으므로 費用節減效果는 거의 蒐集・搬出商人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小賣商과 消費者의 關係에 있어서도 小賣商은 許可制 등으로 商人間에 부분적이거나 寡占的 競爭關係에 있으므로 需要面에서 完全競爭關係에 있는 消費者에 비하여 相對적으로 有利한 位置에 놓이게 된다. 뿐만아니라 消費者는 米穀의 等級化, 標準化가 未備한 狀態이기 때문에 價格이나 品質에 대한 情報가 不足하여 小賣商과의 米穀去來에 있어서 不利한 位置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產地 直結流通에 의해 費用을 節減한 小賣商은 隣近 小賣商과의 價格競爭을 위해 小賣價格을 引下시킬 것으로 期待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比較的 가까운 距離에 있는 產地(주로 京畿道, 忠淸道地方)의 米穀은 주로 直去來가 되고 있지만 遠距離에 있는 地域(예컨대 湖南地方)에선 대부분 都賣市場을 經由하여 流通되고 있다. 따라서 現在 서울시의 경우 產地直結流通量만으로는 需要를 充足시킬 수 없다. 따라서 小賣米價는 都賣市場을 經由하여 流通되는 米穀의 販賣價格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므로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小賣商은 超過利潤을 얻게 되리라 본다. 이와같이 產地 直結流通이 增大됨에 따라 流通費用이 節減되고 있으나 그 節減效果가 生産者나 消費者에게 별로 惠澤을 주지 못하고 中間商人의 利潤增大로 귀결되고 있다.

V. 맺는 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米穀流通에 있어서 최근에 政府米 比重이 크게 增加되었고 交通과 通信의 발달로 產地直結去來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都賣市場經由의 米穀流通量이 크게 減少하는 추세에 있다. 產地直結去來는 流通段階을 단축시킴으로써 都賣市場經由에 비하여 流通費用이 節減되나 이 費用節減의 效果가 商人의 利潤을 增大시킬 뿐 生産者와 消費者 價格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의 주 原因은 生産者와 消費者가 去來關係에 있어서 商人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產地直結에 의한 費用節減效果가 모든 流通主體(生産者, 消費者, 商人)에게 均등하게 配分되기 위해서는 農協共販事業이나 生産者 또는 消費者 組合 등을 통하여 產地和 消費地の 市場構造를 보다 競爭적으로 改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產地直結去來의 경우에는 產地搬出商人 혹은 未登錄蒐集 搬出商들이 稅源露出을 피함으로써 稅金을 포탈할 可能性이 높다는 否定的인 側面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米穀의 產地直結을 抑制하고 都賣市場經由의 米穀流通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措置를 취하는 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產地 直結去來가 增大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流通下部構造의 발달에 힘입어 流通費用을 줄여 利潤을 증대시키려는 商人의 기본적인 慾求인 關係로, 이를 制限하는 데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產地直結去來時 특히 都賣市場에서 遠距離에 있는 小賣商, 예를 들면 은평구 地域의 小賣商은 인근 產地에서 米穀을 直接購入하는 것이 서초동 都賣

市場에서 購入하는 것보다 費用이 적게 들어 產地直結을 選好할 것이며, 이 地域의 米穀을 서초동 都賣市場을 經由하여 서울시 內에 流通시키는 것은 輸送費의 增大를 招來할 것이므로 資源利用面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搬出商 혹은 未登錄蒐集 搬出商들이 稅源을 감추기 위해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경우에 對處하여 合理的인 課稅方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에 서울시의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淸급 물량이 극히 적은 관계로 都賣市場의 機能을 제대로 발휘치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서울시 一般米價를 代表하는 價格마저 형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초동 都賣市場은 等級化나 標準化가 확립되지 않은채 競賣制度가 실시되지 못하고, 個別委託商(또는 都賣商)이 米穀의 入荷量과 需要量 그리고 產地和 消費地의 時勢를 고려하여 販賣價格을 決定하는 去來方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米去來의 基準이 될 수 있는 都賣市場의 公正한 價格形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都賣市場의 育成은 물론 等級化와 標準化를 바탕으로 한 多數의 供給者와 需要者가 競爭의으로 價格決定에 參與하는 近代의인 公賣制度의 發展이 요청된다 하겠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와 같이 政府米 放出量이 全體消費地 米穀流通量의 約 70%를 占하고, 一般米 流通量 中 產地直結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 與件下에서는 都賣市場의 正常的인 機能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그렇다고 하여 米穀의 產地直結을 抑制하고 都賣市場을 經由하여 米穀이 流通되도록 制度的 措置를 취하는 데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限界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都賣市場의 育成은 政府放出量이 米穀流通量에 차지하는 比率如何에 따라서 크게 左右되리

라 본다. 물론 米穀流通을 商人組織에 크게 依存할 경우에는 商人의 價格操作의 可能性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 兩者를 어느 水準에서 調和시킬 것인가는 主要한 研究課題라 하겠다.

米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서는 우선 現在の 類似都賣市場 組織을 改編하여 法定都賣市場으로 制度化함으로써 公正去來를 保障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都賣市場의 施設擴充과 적절한 立地選定이 必要하며 都賣市場의 米穀搬入을 沮害하는 主要因의 하나인 附加價值稅制를 비롯한 現行稅制에 대한 合理的인 改善이 요청된다.

특히 都賣市場에서 米穀을 購入하는 小賣商은 地域的으로 廣範圍하게 分布되어 있으므로 分配費用을 고려하여 都賣市場의 數, 位置 規模 등을 적절히 決定해야 할 것이다.

本 調査에 의하면 서울시 小賣商이 米穀購入時 都賣市場을 이용하지 않고 產地直結去來를 하게 되는 주요한 理由로서 都賣市場에서 購入할 경우엔 輸送費用이 많이 들거나 都賣市場까지의 거리가 멀고 交通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者가 57%에 달하고 있다(表 7). 都賣市場에서의 公正한 價格形成을 위해서는 米穀의 等級化, 標準化가 先行되어야 하며 市場情報機能을 強化할 수 있는 方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註 1. 農協中央會, 「米穀마케팅 實態調査報告書」, 1978. p247.
2. 金正璣, “農產物流通關聯稅法과 流通助成機能” 「農村經濟」 第3卷第3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9.

參 考 文 獻

1. 農協中央會, 「米穀마케팅 實態 調査報告書」, 1978.
2. 農業經營研究所, 「米穀流通構造에 관한 研究: 湖南米를 中心으로」, 1971.
3. 國務總理 企劃調整室 評價教授團, 「流通構造改善에 관한 調査研究: 農水產物을 中心으로」, 1978.
4. 農業經營研究所, 「米穀의 價格 流通 및 消費에 관한 研究」, 農業經濟研究報告 47, 1972.